

가을, 광주는 축제다... ‘G-페스타 광주’ 72일 대장정

G-페스타 광주²⁰²⁵ 가을 시즌 주요 일정

테마	행사명	기간	장소
미식	군분로 글로벌 토요야시장	9.6/13/20/27 (4회)	남구 군분로 일대
	송정 남도맛 페스티벌 (도란도란야시장 연계)	9.12(금)~9.13(토)	송정로 일대
	광산 세계야시장	10.18(토)	광산구 월곡동 일원
	양동통맥축제	10.30(목)~11.1(토)	양동통맥시장 일원
	광주김치축제	10.31(금)~11.2(일)	광주시청 일원
열정	동명커피산책	11.8(토)	동명동 카페거리·ACC 부설 주차장
	광주 2025 세계(창매인) 양궁선수권대회	9.5(금)~9.12(금)/9.22(월)~9.28(일)	광주국제양궁장·5·18민주광장
	광주 사운드파크페스티벌	9.6(토)	사직공원 일대
	광산뮤직ON 페스티벌	9.20(토)~9.21(일)	황룡천수공원 일원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10.15(수)~10.19(일)	금남로·총장로·예술의 거리 등
낭만	빛고를 책마당	9.6(토)~9.7(일) / 10.11(토)~10.12(일)	광주시청 일원
	2025 펍크닉(광주펍쇼·캣토피아 연계)	10.10(금)~10.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
	총장라운페스타	10.15(수)~10.18(토)	총장로 일원
	광주 버스강원드컵	10.15(수)~10.19(일)	ACC 하늘마당·5·18민주광장
	광주 서창역새축제	10.16(목)~10.19(일)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
예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1.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9.11(목)~9.14(일)	광주예술의전당 일원
	2025 앙림 아트 워크	9~11월 매주 토요일 (10월 중 토·일)	앙림문화센터
	아트광주25	10.23(목)~10.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글로벌 광주 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	9.12(금)~9.13(토)	김대중컨벤션센터
체험	인공지능전시회 AI Tech+ 2025	10.15(수)~10.17(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메디뷰티산업전	10.30(목)~11.1(토)	김대중컨벤션센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11.5(수)~11.7(금)	김대중컨벤션센터

※ 일정·장소는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광주 사운드파크페스티벌 관람객들.

〈광주시 제공〉

‘DMZ 여행’ 광주평화열차 신청하세요

300명 모집...9월 19일 출발

광주시가 9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한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평화열차 참가 신청은 25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번 평화열차는 지난 6월 첫 운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평화 정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열차는 효천역을 출발해 파주 DMZ로 향하

며, 이동 중에는 달리는 음악다방, 추억의 간식 쿼츠, 통일강연·연극·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비무장지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번 평화열차에는 총 300명이 탑승할 예정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1만원이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시민권위화국장은 “광주평화열차가 남북평화 기반을 다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11월 8일까지 26개 행사...미식·열정·낭만·예술·체험 5대 테마 게임형 리플릿으로 인증 미션 수행·보상...교통·숙박 편의 강화

가을의 초입 광주가 도심 전체를 무대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축제·행사·마이스(MICE) 통합브랜드 ‘지(G)-페스타 광주’가 8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72일간 열린다. 지난해보다 행사 수와 기간이 크게 늘어난 이번 가을 시즌은 총 26개 행사가 5개 테마로 구성돼 광주만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광주만의 매력을 담은 5대 테마=올해 가을 G-페스타는 단순한 계절 구분 대신, 광주의 감성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테마 편성으로 진행된다. 미식 테마는 광주의 맛을 즐기는 축제로, 광주김치축제, 비어페스트 광주, 광주송정 남도맛페스티벌, 동명커피산책, 양동통맥축제, 군분로 글로벌 토요야시장, 광산세계야시장 등 일곱 개 행사가 시민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열정 테마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채워진다. 추억의 총장축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X-뮤직페스티벌’,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광산뮤직온 페스티벌 등이 도심 곳곳에서 열리며 음악과 스포츠,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낭만 테마는 광주서창역새축제, 빛고를 책마당,

광주 펍크닉, 버스강원드컵, 총장라운페스타가 마련돼 가을의 정취와 감성을 시민과 나눈다. 역세권락지와 버스킹 무대가 자연스러운 쉼표를 제공한다. 예술 테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광주 25, 앙림아트워크, GAC 공연예술축제 ‘그라제’가 도심의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특히 ‘포용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는 국내외 4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세계적인 전시를 펼친다. 체험 테마는 산업·기술 중심의 전시형 축제로, 에이스페어, 빅스포(BIXPO) 2025, 에이아이테크플러스, 메디뷰티산업전, 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 등이 열려 미래산업의 흐름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와 몰입을 더한 새로운 축제=광주시는 이번 G-페스타를 단순히 ‘보는 축제’가 아닌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켰다. 보드게임 부루마블 콘셉트를 차용한 게임형 리플릿을 제작해, 방문객이 각 축제를 여행하듯 돌며 인증 미션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교통과 숙박 편의도 강화됐다. ‘광주투어버스’

수요응답형(DRT) 교통이 광주송정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철도페스와 연계한 숙박비 지원, 숙박세일페스타, 레일텔 상품 등도 마련돼 관광객의 체류를 돕는다. 입장권 연계 혜택도 눈길을 끈다. X-뮤직페스티벌과 디자인비엔날레 등 유료행사 티켓을 제시하면 에이스페어, AI Tech+, 메디뷰티산업전 등 광주관광공사 주관 행사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비엔날레 티켓 소지자는 광주 북구 음식점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머무르는 도시, 다시 찾는 광주=광주시는 이번 G-페스타를 계기로 광주를 단순한 당일치기 여행지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축제장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방문객이 광주에서 더 오래 머물며 다채로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또한 SNS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지(G)-페스타 광주’ 브랜드 확산에 나선다. 가을 시즌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지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지(G)-페스타 광주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광주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라며 “올 가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광주의 다채로운 축제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앙부처 기능, 광주로 이전해야”

박병규 광산구청장, 문화체육·고용노동부 일부 기능 ‘제2청사’ 제안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가 광주로의 중앙부처 기능 이전을 주장하며 국가균형발전 담론을 다시 꺼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재생을 견인할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병규(사진) 광산구청장은 최근 개인 SNS에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된 도시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지역문화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부문 등 일부 기능을 이전에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2청사’ 형식의 분산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부처를 지방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상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균형발전 정책과 접목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재생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제언이라는 것이다. 박 청장은 “광주는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전국적 거점 기능을 수행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산업의 핵심 축인 문화와 일자리가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혁신 사례로, 고용노동부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드론으로 환경오염 단속

시, 9월 산단 11곳 등

광주시가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9월 한 달 동안,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산업단지 11곳을 포함해 민원이 집중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 활용이다. 광범위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나 사업장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광주시는 드론 영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치시설 관리 실태,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광주시 사회재난과가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에는 처벌 일변도가 아닌 개선 유도형 지원도 병행한다. 광주시는 광주주변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과 공정을 진단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해 스스로 환경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